

중기청.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수요자 위주로 개편

올해부터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지원 인증 분야가 기존 73개에서 93개로 대폭 늘어난다. 또 업체 선정 기간도 기존 분기별에서 2개월로 1개월 가량 단축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개편안'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지원 인증 분야에 영국 선급협회인증(LR), 프랑스 선급협회인증(BV) 등 20여 개 분야가 새롭게 추가돼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단, 미국 자동차품질인증(QS 9000)은 내년으로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실상 이에 따른 규격획득지원 사업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지원 신청에서부터 선정, 협약 체결에 따른 업체 선정 기간도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2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4회에 그쳤던 업체 선정 횟수도 5~6회로 늘리기로 했다. 업체당 지원 금액도 기존 최고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0% 상향 조정된다.

특허청·변리사회, '돈없는 벤처'에 무료 특허서비스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는 가운데 돈없는 유망 벤처기업이나 창업희망자가 오는 3월부터 무료로 신기술 특허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청장 김종갑)과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는 오는 3월부터 중소·벤처기업가, 창업희망자 등에게 무료 변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변리사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분야 법률구조사업인 공익변리사제도는 정부의 제2벤처 붐 조성 시책, 국회의 IT 지원예산 2562억원 증액과 맞물려 신기술 개발 및 창업 붐을 견인하는 지렛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익변리사는 지난해 11월 기획예산처가 그 필요성을 제기한데 따라 도입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과 학생·장애인·영세 발명가 등에게 출원서, 심판청구서 등을 무료로 작성해주거나 안내해주는 등 신기술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30여 개 지역지식센터 등 변리사가 부족한 지방의 순회서비스도 실시하게 된다.

기술신보, 중소·벤처기업에 올 11조 보증

정부가 벤처육성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올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11조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보는 올해 중점지원 대상인 기술평가보증을 창업초기 기업에 8000억원, 성장·성숙단계 기업에 1조7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벤처시장 참여자간 자기책임 강화를 위해 투자연계형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벤처보증 2조8000억원을 비롯, 혁신선도형기업에 총 6조8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산업보증에 7000억원, 납품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보증에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보는 특화분야인 기술평가에 집중, 기술평가보증을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린 2조5000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기준 15%인 기술평가보증 비중을 올해는 25%, 내년에는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부, 상반기 벤처기업 병역특례업체 지정신청 접수

과학기술부(장관 오명)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벤처기업(자연계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병역특례업체 지정연구기관 신청을 접수한다. 대기업 등 일반기업은 연간 1회(7월)에 한해 병역특례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벤처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벤처기업은 매년 1월 및 7월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아 4년간(2005년 7월 1일 이후로는 3년) 연구활동에 투입할 수 있다. 선정을 위해서는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연구전담 요원 5인 이상(중소·벤처기업은 2인 이상) 상시 확보 등 제반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병역특례 신청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과기부(www.most.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를 참고하면 된다.



▲ 2005년 1월 1일 파이낸셜뉴스 17면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벤처산업과 관련, 신년기획으로 벤처 생태계 복원과 벤처기업의 신뢰회복, 성장잠재력을 다룬 특집기사.



▲ 2005년 1월 11일 Economy21, 주간한국

정부가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과 벤처패자부활시스템, 고용창출 등을 심도있게 다룬 경제주간지들

2005년도 산업경쟁력강화사업 지원계획 공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원장 김태현)은 IT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중소·벤처기업의 산업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2005년도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전산 및 서면접수를 오는 2월 15일 마감한다.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방송, RFID/USN 등 11개 지정분야 34개 지정과제와 IT분야 단기 상용기술개발 과제를 자유 공모한다. 과제당 주요 연구비 합계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등에 의거 적합성평가,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종합조정심사 등 5단계 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의 사업안내서를 참조하면된다.

■ 문 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042)869-1445, 1441~7)

2005년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단독주관개발사업) 계획 공고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는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2005년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를 오는 2월 25일 마감한다. 지원분야는 7개 분야 193개 부품·소재로 기술개발신청자는 단일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여야 하며, 투자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를 참조하면 된다.

■ 문 의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02-2110-561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02-6009-8103,8191~7)

코스닥 신바람, 대덕서도 '쌩쌩'

새해들어 코스닥 시장에 부는 상승바람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대덕밸리 코스닥 벤처기업들도 휘파람을 불고 있다. 중앙백신연구소를 비롯해 아이디스, 블루코드테크놀로지, 인바이오넷, 빛과전자 등 대덕밸리 코스닥 등록업체들이 '코스닥 400선' 돌파와 맞물려 연일 주가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호전 이유도 있지만 코스닥 시장 동반 상승 요인과 정부의 벤처 활성화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올유년 코스닥 입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케이엘테크(대표 김상호)를 비롯해 해빛정보(대표 박병선), 케이맥(대표 이중환) 등이 올해 중으로 코스닥 진입을 시도할 예정이다.